

『조선예술』 1990년 북한연극 읽기

- 작가는 신세대에게 헌신성과 민족성을, 연출은 배우에게 '체험'의 중요성을 -

1990년 연극계는 작품에서 김일성의 품모 형상화하고, 현실주체의 작품, 소품들을 창작하며, 지방공연과 해외공연을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하며 새해를 시작한다. 한편 가극계는 새해에도 혁명가극 《피바다》를 계속 공연하면서 새로운 가극을 《피바다》식 혁명가극으로 창조하겠다고 밝힌다.

공연작품, 특징과 의미

1990년 북한 연극계에서 주목되는 행사는 2월의 '전국화술소품'축전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전국의 연극단체들이 '화술'을 주 표현매체로 단막극을 창작하여 무대에 올린 축제다. 예견되듯이 축전에 참가한 작품들은 크게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 군인과 인민의 일치를 주제로 삼았고, 형식적 측면에서는 《성황당》식 형상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중 특히 단막극 《우리 새세대》와 《동백꽃》이 주목을 받는다. 2월, 6월, 7월, 9월에 실린 연극평은 이 작품들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새세대》는 '개인의 희생으로 집단의 유익에 기여하는 인간형 구현'으로, '새 세대들의 높은 정신을 진지하게 그린 것'에서, 《동백꽃》은 '민족제일주의 정신으로 조국통일 투쟁을 적극 고무함'으로, '민족의 설움을 겪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민족정신을 심어주었다'는 점에서 고평된다. 북한 연극계의 기본방침은 신세대에게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정신과 민족정신의 재교육으로 정리될 수 있다.

장소수기: 김정일의 가르침, 체험하는 연기

6월의 창작수기는 모두 단막극 《우리 새세대》와 관련된 것이다. 작가 라성덕은 새 세대들에 대한 우려감을 가졌으나 우연한 사건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확인하고 그것이 희곡을 쓴 동기가 되었다고 회고하며, 리일현은 창작과정에서 기존의 극작술이나 구성법을 무시하면서, 오직 김정일의 가르침에 따라 작품을 형상했다고 한다. 배우 신순영과 신금철은 직접 현장을 찾아 연기의 실마리를 풀었다고 회고한다. 창작가들은 김정일의 연극론과 체험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주목할 것

북한 연극계는 90년에 특히 신 세대 교육을 중시한다. 그들은 전쟁의 체험이 없는, 민족성, 헌신성이 부족한 세대로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작품은 그들에게 이를 인식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또한 90년 남한과의 교류기류가 흐르자, 작품에서 조국통일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물론 이는 1994년 이후 다른 흐름이 될 것이다. 이외 배우들의 연기를 위한 방법론으로는 해방직후부터 제기된 '체험'이 여전히 강조된다. 이에 비해 가극에서 특별한 활동이 발견되지 않는다. 가극계의 휴면기로 짐작된다.

김정수